

평생 교육의 관점에서 본 문법 교육

조진수

전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1. 들어가며

방송 언어 자문을 했을 때의 일이다. ‘오리고기’와 ‘값’의 띄어쓰기에 관한 질문을 받았는데 사전을 찾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¹⁾ 우선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오리고깃값’과 ‘오리고기값’을 검색해 보았는데, 검색되지 않았다. 그 다음 ‘오리고기’를 검색해 보았더니 한 단어로 등재되어 있었고, 뜻은 ‘식용으로 하는 오리의 고기’였다.

그리고 나서 ‘값’을 사전에서 검색해 보았다. 검색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명사」

「1」 사고파는 물건에 일정하게 매겨진 액수. ≒가문05(價文).

㉠ 값이 나가다/값이 비싸다/값이 싸다/값이 오르다/값이 내리다/값을 매기다/물건의 값을 깎다/이 차는 낡아서 값이 좀 헐하다.

「2」 물건을 사고팔 때 주고받는 돈.

㉡ 값을 주다/값을 치르다/값을 물다.

1) ‘오리고기’와 ‘값’의 띄어쓰기 문제는 조진수·소지영(2016)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3」 어떤 사물의 중요성이나 의의.

㉠ 값이 없는 일/평생 남을 위해 봉사한 그의 삶은 값이 있는 것이었다.

「4」 노력이나 희생에 따른 대가.

㉠ 였다, 이거 심부름한 값이다./주인은 수고한 값으로 쌀 한 되씩을 주었다.

「5」 어떤 것에 합당한 노릇이나 구실.

㉠ 태남이는 허우대 값도 못하고 얼굴이 벌게졌고...《박완서, 미망》

「6」 『수학』 하나의 글자나 식이 취하는 수. 또는 그런 수치.

㉠ '2x=6'에서 x의 값은 3이다.

「7」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가격', '대금', '비용'의 뜻을 나타내는 말.

㉠ 기름값/물값/물건값/부식값/신문값/우옷값/음식값.

「8」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수치'의 뜻을 나타내는 말.

㉠ 변숫값/분석값/위상값/저항값.

「9」 ((「-ㄹ 값에」 구성으로 쓰여))「-더라도」, 「-ㄹ지언정」의 뜻을 나타내는 말.

㉠ 나중 가서야 어찌 될 값에, 당장의 아픔을 견디다 못하여 동학에 가담하였노라고 자복을 하였다.《채만식, 논 이야기》

‘값’의 의미를 하나씩 살피어 가다가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가격’, ‘대금’, ‘비용’의 뜻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기름값’, ‘물값’, ‘물건값’, ‘부식값’, ‘신문값’, ‘우옷값’, ‘음식값’이 사례로 제시되어 있었다. 사례로 제시된 단어들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지 궁금해져서 하나씩 검색해 보기 시작하였다. ‘물값’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전에서 검색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일련의 검색 작업을 통해 확인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 (1) ‘오리고깃값’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 (2) ‘오리고기’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 (3) ‘값’은 명사인데, 일부 명사 뒤에 붙여 쓰는 경우가 있다.
- (4) ‘값’이 일부 명사 뒤에 붙는 경우, 그 말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오리고깃값’이 ‘오리고기의 가격’을 뜻한다면, 여기서 ‘값’은 ‘가격’의 뜻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값’이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가격’의 뜻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오리고기’가 그 일부 명사에 해당한다면 ‘오리고깃값’과 같이 쓸 수 있을 것이다.²⁾ 누군가 ‘오리고깃값’이 사전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을 수도 있으나, ‘기름값’, ‘우웃값’ 등도 사전에 등재되지 않았으니 ‘오리고깃값’ 역시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고 답할 수 있다.

‘오리고깃값’의 띄어쓰기 문제를 검토했던 경험은 여러 측면에서 두고 두고 기억에 남았다. 우선 성인이 되어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어문 규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반인들에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고등학교에서 다루는 표기 사례는 주로 규범의 원리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2) ‘오리고기’와 ‘값’을 붙여 쓸 경우 [오리고기값] 또는 [오리고기값] 정도의 발음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오리고깃값’과 같이 사이시옷 표기를 하였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는 사이시옷 표기는 합성어를 대상으로 하는데 ‘오리고기’와 ‘값’이 결합한 형태를 한 단어로 간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이시옷 현상은 수의적이든 이 경우 ‘값’의 ‘ㄱ’이 된소리로 발음된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첫 번째 문제의 경우 한글 맞춤법 제30항 해설에서 ‘합성어’뿐 아니라 ‘합성어에 준하는 구조’도 함께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오리고기’와 ‘값’이 결합한 형태가 ‘합성어’든 ‘합성어에 준하는 구조’이든 사이시옷 표기에 문제가 없다. 두 번째 문제의 경우 사이시옷 현상이 수의적이기는 하지만 ‘오리고깃값’과 유사한 환경에서 ‘값’의 ‘ㄱ’이 대체로 된소리로 발음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추정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사이시옷 현상이 수의적이기 때문에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단어의 사이시옷 표기를 확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예컨대, 우리말샘에서는 ‘둘레’와 ‘길’이 결합한 형태인 ‘둘레길’을 ‘산’이나 ‘호수’, ‘섬 따위의 둘레에 산책하기 좋게 꾸며 놓은 길’이라고 설명하면서 규범 표기는 미확정임을 밝히고 있다. 사이시옷 현상이 수의적이기 때문에 ‘둘레길’로 표기해야 할지, ‘둘렛길’로 표기해야 할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다. 사이시옷 표기에 관해서는 추가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지만 본고의 주제와는 다소 벗어나므로 별도의 자리에서 상론하기로 한다.

전형적인 것으로 제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정된 교과서 지면과 교육 시간을 고려할 때 규범의 원리를 이해하기에 적합한 사례를 선정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정당하며 적절한 것이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 부딪히는 어문 규범의 문제들은 복합적이며, 애매하고, 지역적인 경우도 많다. ‘오리고깃값’의 표기 문제를 접하면서 성인을 위한 어문 규범 교육을 어떤 관점에서 설계해야 할지 고민해 보게 되었다.

‘오리고깃값’의 사례와 관련하여 또 하나 특기해 둘 사실은 국어사전 확인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 그 자체가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점이다. 성인들이 국어 생활에서 부딪히는 어문 규범의 문제들을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통해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 하는 것이 이어진 문제의식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어문 규범 교육이 학교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점을 수용하고 그에 맞는 교육을 설계하고자 할 때 언제나 제기되는 핵심적인 물음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어문 규범 교육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어의 구조와 운용의 원리를 학습하는 일, 즉 문법 학습 역시 학교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평생의 과업이다. 따라서 성인이 필요로 하는, 성인에게 필요한 문법 교육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법 교육을 설계하는 작업이 요구된다.³⁾ 문제는 성인들이 필요로 하고, 성인에게 필요한 ‘문법’이 어떤

3) 문법 학습이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과업이라면 성인 교육뿐 아니라 학령기의 학교 교육 역시 평생 교육의 관점에서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평생 교육은 넓게 보아 학교 교육을 포함하여 개인이 전 생애에 걸쳐 참여하는 교육을 총칭(민현식, 2015:42)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학령기의 학교 교육이 평생 교육 또는 생애 교육의 관점에서 어떻게 재구조화되어야 할지는 조진수·소지영(2016)에서 어문 규범을 소재로 논의된 바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성인 교육 차원의 문법 교육으로 논의의 범위를 한정한다.

‘문법’인지일 것이다. 과연 성인에게 필요한 문법 교육은 어떤 성격을 지녀야 할 것인가?

2. 성인에게 필요한 문법 교육의 성격: 실제성, 자기 주도성, 언어적 성장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법 교육은 어떤 성격을 지녀야 할까? 여기서는 ‘실제성’, ‘자기 주도성’, ‘언어적 성장’을 핵심어로 삼아 논의한다.

우선 ‘실제성’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법 교육의 내용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 전제에 해당한다. 물론, 실제성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법 교육 뿐만 아니라 학령기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학교 교육에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성영(2012:61)의 지적대로 “실제의 언어는 난해해서 학습자들의 수준에 부적합”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 실제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성영(2012)에서는 ‘실제성의 숭배(cult of authenticity)’를 경계하며 실제성과 가상성의 공존을 주장한 바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법 교육에서는 학령기의 학교 교육보다 실제성을 더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학령기 학교 교육에서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제시된 문법 개념을 교수·학습하기에 적합한 사례가 선정된다. 이 과정에서 해당 학년(군)보다 위계상 높은 수준의 문법 개념이 요구되거나, 성취 기준에 제시된 내용과 무관한 문제가 얹혀 있는 사례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된다. 이러한 사례 선정 방식은 교육과정 성취 기준의 위계화에 입각한 것으로,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따라 문법을 학습해 가는 학령기의 학교 교육에 적절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학교 교육을 이미 받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법

교육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성인이 실제 국어 생활에서 부딪히는 언어 자료들에는 다양한 문법 현상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법 교육은 특정 문법 개념을 학습하기 위해 사례를 동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인 학습자 주변의 언어 사례 자체가 교육의 중심이 되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 국어 생활에서 접하는 실제 언어 자료들을 문법이라는 안목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법 교육의 중요한 교육 내용이 된다. 따라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법 교육에서 다루는 언어 자료는 '실제'에 가까운, '실제성'이 높은 것이어야 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법 교육이 실제성 있는 언어 자료를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교육 내용의 체계성에 관한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문법 개념을 중심으로 교육을 설계하지 않고 실제성이 높은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설계할 경우 교육 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반론의 요지일 것이다.

이 문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법 교육이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가와 관련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법 교육을 통해 성인 학습자들은 어떤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가?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문법 개념을 더 많이 알게 될 수도 있고, 흥미로운 언어 사례를 분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변화 역시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지향하는 본질적 목표는 성인 학습자가 자신을 '성장하는 언어적 주체'로 인식하도록 하는 데 있다.⁴⁾

성인 학습자는 문법이라는 안목으로 국어 생활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경험을 통해 성장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험이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고 스스로를 성장하는 언어적 주체로 인식하는 것을 '언어적 성장'으로 규정

4) 문법 교육에서의 '언어적 주체' 개념에 대해서는 신명선(2007, 2013) 참조.

할 수 있다. 성인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성장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학습자의 ‘자기 주도성’이다. ‘자기 주도성’은 평생 교육 일반에 관한 연구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윤여각, 2002; 이지혜, 2000). 자기 주도성은 기본적으로 학습자의 자율성을 뜻하는 개념인데, 자기 주도성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우선, 학습자가 학습을 하는 방법을 알아야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따라서 자기 주도적 학습자를 기르기 위해서는 학습을 하는 방법에 대한 학습이 선결 과제로 요구된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학습자가 스스로를 학습을 통해 성장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견인하고, 또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 강화된다.

이처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법 교육이 성인 학습자가 스스로를 ‘성장하는 언어적 주체’로 인식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수용하면, 문법 개념이 아닌 실제성이 높은 언어 사례를 교육 설계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법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사례를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문법적 안목과 태도를 갖추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법 교육에서 ‘실제성’, ‘자기 주도성’, ‘언어적 성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법 교육의 하위 분야는 여러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어문 규범 교육’과 ‘문법 문식성 교육’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논의한다.

3. 성인을 대상으로 한 어문 규범 교육

성인을 대상으로 한 어문 규범 교육은 ‘실제성’ 있는 사례를 소재로 삼아,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유도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학습자의 ‘언어적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제성’, ‘자기 주도성’, ‘언어적 성장’이라는 개념이 성인 대상 어문 규범 교육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규명되어야 한다.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의 질의응답 사례를 활용하여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자.

[재질문] 위해주는척 띄어쓰기
· 등록일 2018. 8. 19.

위해주는척하기
위해주는척하는듯이
띄어쓰기도 궁금합니다.

-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 질문 사례

위 질문이 어떤 맥락에서 발생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온라인 가나다’에 올라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국어 생활에서 부딪힌 문제라고 간주할 수 있다. ‘실제’에 해당하는 개별 사례 하나가 ‘실제성’의 모든 속성을 반드시 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 사례는 성인이 실제 국어 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어문 규범 문제의 특성을 잘 보여 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질문에 상세한 설명이 담겨 있지 않아 질문자의 원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제시된 내용만을 토대로 하면 위 사례에는 대략 세 가지의 하위 질문이 담겨 있다.

첫째는 ‘위해’와 ‘주는’의 띄어쓰기 문제이다.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본용언’, ‘보조 용언’이라는 문법 개념을 알아야 하고, 보조 용언 띄어

쓰기의 원칙과 허용 규정도 이해해야 한다. 이 사례에서는 ‘위해 주는’과 같이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고 ‘위해주는’과 같이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된다.

둘째는 ‘척하기’의 띄어쓰기 문제이다. 이 문제는 보조 동사 ‘척하다’가 한 단어로 사전에 실려 있다는 점을 안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그리 단순한 것은 아니다. ‘척하다’는 보조 동사이지만, ‘척’은 여전히 의존 명사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척’과 ‘하다’의 띄어쓰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순간이 존재한다. 예컨대, “네가 아는 척을 해서 일이 이렇게 된 거야.”라는 문장에서 ‘척’과 ‘하다’는 붙여 쓰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척하다’의 띄어쓰기 문제는 쉽지 않다.

‘본칙만척하다’와 같은 사례도 있다. ‘척하다’가 하나의 보조 동사라고는 하지만 ‘본칙만척하다’의 경우 ‘하다’가 ‘척’과 결합했다기보다는 ‘본칙만척’과 결합했다고 하는 것이 모어 화자의 직관에 부합한다. ‘본칙만척하다’가 이미 사전에 등재된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본칙만척하다’의 띄어쓰기 문제는 국어사전만 확인해도 쉽게 해결되기는 하지만, 표면적으로 ‘척’과 ‘하다’를 붙여 쓰는 경우라도 ‘척’과 ‘하다’가 직접 결합한 것은 아닌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척’과 ‘하다’의 띄어쓰기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셋째는 ‘위해 주는/위해주는’과 ‘척하는’의 띄어쓰기 문제이다. 한글 맞춤법 규정 제47항에서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척하다’가 보조 용언이므로 이 사례가 보조 용언을 앞말에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한글 맞춤법 규정 제47항 해설에서 ‘기억해둘 만하다’, ‘되어가는 듯하다’와 같이 보조 용언이 거둬지는 경우 앞의 보조 용언만을 붙여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해 주는 척하는’이 원칙이고 ‘위해주는 척하는’이 허용된다.

‘위해 주는/위해주는’과 ‘척하는’의 띄어쓰기는 경우에 따라 굉장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다. 우선, ‘척하다’가 보조 용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단순히 ‘척’이 의존 명사라고만 생각하여 ‘위해 주는/위해주는’이 ‘척’을 수식하므로 ‘척’을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척하다’가 보조 용언임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표기상으로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척’과 ‘하다’의 띄어쓰기 판단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척하다’가 보조 용언임을 알고 보조 용언을 앞말에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우선 앞말이 합성 용언인 경우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붙여 쓸 수 없다는 점을 떠올려 볼 수 있다. 사실 ‘위해 주는’은 ‘위해주는’으로 표기될 수 있으나 띄어쓰기 규정상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에 붙여 쓴 것일 뿐 합성 용언은 아니다. 즉, ‘위해 주는’에서 ‘주는’이 보조 용언이기 때문에 ‘위해주는’과 같은 표기가 허용된 것일 뿐 ‘위해주는’이 한 단어는 아닌 것이다. 그런데, 규정상 붙여 쓰기가 허용되어 붙여 쓴 것과 한 단어이기 때문에 붙여 쓴 것의 차이를 알지 못하여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다. 물론, 이 사례에서는 이와 같이 잘못된 판단을 하여도 ‘위해주는’과 ‘척하는’을 띄어 써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척하는’과 ‘듯이’의 띄어쓰기 문제가 ‘위해주는’과 ‘척하는’의 띄어쓰기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 사실 ‘척하는’은 보조 용언이고 ‘듯이’는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혼동될 것이 없다. 그러나 보조 용언 ‘척하는’의 ‘척’에만 주목하여 ‘척’이 ‘듯이’의 ‘듯’과 동일한 성격을 지닌다고 보고, 두 경우 모두 ‘~는’의 형태를 지닌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는 인식이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즉, ‘척하는 듯이’와 같이 ‘척하는’과 ‘듯이’를 띄어 쓴다는 점에 비추어 ‘위해주는 척하는’과 같이 ‘위해주는’과 ‘척하는’도 띄어 써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위해주는’과 ‘척하는’을 띄어 써야 한다는 결론은 표기법에 부합하지만,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이 타당하지 않다. ‘아는 척하는 듯이’와 같이 다른 사례였다면 ‘아는 척

하는 듯이'와 '아는척하는 듯이'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판단은 차후 표기상의 오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위 사례는 성인들이 실제 국어 생활에서 부딪히는 어문 규범의 문제가 복합적이고, 때론 지엽적이며, 다양한 오개념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우선, 성인들이 국어 생활에서 부딪히는 어문 규범의 문제들은 다양한 층위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경우가 많다. 위 사례만 하더라도 '위해'와 '주는'의 띄어쓰기 문제, '척하기'의 띄어쓰기 문제, '위해 주는/위해주는'과 '척하는'의 띄어쓰기 문제가 얽혀 있다. 더하여 기본적인 문법 개념이기는 하지만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개념도 알아야 하고, '척하다'와 같은 형태의 보조 용언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지엽성도 간과할 수 없는 특성이다. 중·고등학교 교육에서였다면 '위해 주는 척하는 듯이'와 같은 사례는 배제되거나 일부 교과서에서만 다루었을 가능성이 높다. '위해 주는 척하는 듯이'와 같은 사례는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에 관한 전형적 문제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를 가르친다면, 우선 '불이 꺼져간다.', '어머니를 도와드린다.'와 같이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는 일반적 경우를 설명할 것이다. 이어 '양하다', '체하다', '듯싶다' 등을 '학자인양하다', '모르는체하다', '울듯싶다'와 같이 앞말에 붙여 쓸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앞의 사례와 같이 보조 용언이 거둬지는 경우는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에서도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교육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성인이 부딪히는 어문 규범의 문제들 중에는 이와 같이 지엽적인 것들도 존재한다.

성인들이 어문 규범과 관련하여 지니고 있는 오개념도 주목해야 할 문제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아는 척하는 듯이'와 같은 사례에서 '듯'과 앞말을 띄어 썼듯이 '척'과 앞말을 반드시 띄어 써야 한다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다. 예상컨대, 이러한 오류는 '아는 척하는'을 '본용언+보조 용언'의

구조로 보지 않고, '아는 척'에만 주목하여 이를 '관형어+의존 명사'의 구조로 보았기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어문 규범 교육에서는 이와 같이 오개념이 존재하는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어 줄 필요가 있다. '아는척하는 듯이'와 같은 사례를 교육의 소재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오개념이 존재하는 사례를 활용하면 특정 사례 하나만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오개념을 발견하고 이를 정개념과 비교해 보는 과정 자체가 성인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 될 수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어문 규범 교육에서 복잡성, 지엽성, 오개념을 모두 고려한 실제성 있는 사례를 다룬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교육에서 다룰 수 있는 사례가 성인이 실제 국어 생활에서 부딪히게 될 모든 어문 규범의 문제를 포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어문 교육에서 다루지 못했던 새로운 어문 규범 문제의 출현은 충분히 예상되는 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인 교육에서는 '자기 주도성'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어문 규범 교육에서 실제성 있는 사례를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에서 다루어지는 사례가 실제 사례를 모두 포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어문 규범 교육은 성인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성인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해서는 '자기 주도적 학습 경험'과 '자기 주도적 학습 방법'의 두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자의 경우 앞서 설명한 실제성 있는 어문 규범 사례를 활용할 수 있는데, 특히 학습자가 이전 수업에서 배우지 않았던 새로운 사례를 문제로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인 학습자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 자체가 자기 주도적 학습 경험에 해당한다.

자기 주도적 학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이러한 문제 해결 경험만을 제공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문제 해결을 위한 학습을 스스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학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것이지만 어문 규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어사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

예컨대, 서두에서 언급한 ‘오리고깃값’의 사례에서 필자는 ‘오리고깃값’과 ‘오리고기값’을 먼저 검색하고 그 다음 ‘오리고기’를 검색한 후 마지막으로 ‘값’을 검색하였다. ‘오리고깃값’과 ‘오리고기값’을 먼저 검색한 이유는 이 단어가 사전에 한 단어로 등재되어 있으면 ‘오리고기’와 ‘값’을 붙여 써야 한다고 바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오리고기’를 검색한 것은 ‘오리’와 ‘고기’를 붙여 써야 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값’은 그 뜻을 누구나 알고 있는 쉬운 단어이지만, 사전 검색을 통해 뜻뿐 아니라 어문 규범과 관련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단어들을 어떤 순서에 따라 국어사전에서 확인할 것인지, 또 국어사전에서 어떤 정보를 확인할 것인지도 중요한 교육 내용이 될 수 있다.

더하여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관한 조항을 확인하는 방법도 알아야 한다. 국립국어원의 ‘온라인 가나다’를 활용하여 자신과 유사한 문제에 부딪힌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역시 간단하지만 유용한 방법이다. 물론, 어문 규범에 관한 책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어문 규범 교육에서 ‘실제성’, ‘자기 주도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논의하였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어문 규범 교육에서 ‘언어적 성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법 문식성 교육에 대해 살펴본 후 논의한다.

4.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법 문식성 교육

그간 이루어진 문법 교육 연구의 성과를 종합해 보면, 문법 교육이 지향하는 인간상은 국어 생활에서 문법을 다층적으로 인식하고 활용하는 언어적 주체로 규정할 수 있다.⁵⁾ 텍스트에 사용된 문법을 다층적으로 읽어 내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은 여러 용어로 정의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문법 문식성(조진수, 2018)’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러한 능력을 지칭한다. ‘문법 문식성’이란 말 그대로 문법을 읽어 낼 수 있는 능력, 문법을 적절히 쓸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목표는 학령기의 학교 교육만으로 달성되기 어렵다. 우리는 평생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언어적 문제에 접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에 대응해 가는 과정을 통해 언어적 주체로서 성장해 가기 때문이다. 언어적 주체로서 국어 생활을 영위해 가는 일은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국어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문법 문식성을 함양하는 것 역시 평생의 과업에 해당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법 문식성 교육은 ‘실제성’, ‘자기 주도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물론, 학령기의 학교 교육에서도 텍스트에 사용된 문법을 다층적으로 인식하고 활용하는 교육 내용으로 설계할 때 실제성 있는 언어 자료를 활용하지만, 실제 언어 자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실제 국어 생활에서 빈번히 접할 수 있는 언어 자료라 할지라도 특정 상품을 홍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텍스트는 교과서에 신기가 쉽지 않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법 교육에서도 언어 자료 선택의 기준과 제한은 존재하겠지만, 실제성 확보를 위해 학령기의

5) 구분관(2016:215)에서는 “문법 교육의 목표에 관해 대체로 합의할 수 있는 것은 문법 교육이 학습자를 언어 사용의 주체로 만들어 주는 데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히며, 문법 교육의 목표에 관한 핵심어로 ‘언어적 주체’, ‘언어 인식’, ‘비판적 언어 인식’, ‘태도’를 제시한 바 있다.

학교 교육보다는 더 유연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자.

- (1) 치킨은 살 안 찌요.
살은 내가 찌요.

(배달 관련 업체의 광고 문구)

- (2) 냥스타그램(냥←Instagram) 고+영 「명」 고양이의 사진을 주로 올리는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 || ○○의 멕스타그램, 멍스타그램에 이어 애묘가들을 위한 공간 {냥스타그램이} 있다. <매일경제 2014년 7월>

[남길임 외(2014), <2014년 신어>, 국립국어원.]

(1)은 배달 관련 업체의 광고 문구 중 하나인데, 보조사 ‘은/는’이 정보 구조(information structure) 차원에서 언급 대상성(aboutness)을 표시한다는 점을 활용하고 있다. 언급 대상은 행위의 주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은/는’에 결합된 언급 대상이 행위의 주체인지 아닌지는 일반적으로 맥락을 통해 확인된다. (1)에서 첫 문장인 “치킨은 살 안 찌요.”만 제시 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독자는 살이 안 찌는 주체가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닭’을 ‘치킨’으로 명명하면 일반적으로 음식을 의미한다는 배경지식이 작용하기 때문에, ‘치킨’을 살이 안 찌는 주체로 볼 가능성을 배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살은 내가 찌요.”라는 문장이 제시되면 이러한 해석은 전복된다. 살이 찌는 주체가 ‘나’라는 점이 선언되면, 앞 문장의 ‘치킨’은 살이 안 찌는 주체로 해석된다.

이 광고 문구는 보조사 ‘은/는’이 언급 대상성을 드러내는 표지로서 행위의 주체나 대상에 모두 붙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고 있다. 성인 모어 화자라면 이 광고 문구를 읽고 해석의 전복을 경험하고는 그 과정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조사 ‘은/는’이 가진 정보 구조적

특성을 문법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면, 이러한 해석의 전복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문법이라는 안목으로 실제 국어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언어 자료를 해석한 사례에 해당하므로, 문법 문식성이 작용한 예로 볼 수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법 문식성 교육은 이처럼 성인이 실제 국어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언어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보다 '실제'에 가까운 '실제성'이 필요한 것이다. 특정한 문법 개념을 학습하기 위해서 그에 적합한 사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실제 국어 생활에서 마주하고 있는 언어 자료를 대상으로 삼아 문법적 안목에서 이를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이 구안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2)에 제시된 '냥스타그램'이라는 새말의 조어법 역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법 문식성 교육의 소재가 지녀야 할 특성을 잘 보여 준다. 물론, 학령기의 학교 교육에서도 합성어, 파생어 외에도 새말을 다루면서 축약어나 혼성어를 함께 다루기는 하지만, 실제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의 새말을 충분히 다루기는 쉽지 않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법 문식성 교육에서는 단어 형성 방법 그 자체를 가르치기 위해 그에 적합한 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성'을 기준으로 실제 현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단어를 적극적으로 교육의 장으로 끌어와야 한다.

(2)에 제시된 '냥스타그램', '먹스타그램', '멍스타그램'은 각 단어를 절단한 후 절단된 부분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혼성어에 해당한다. 실제 현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단어를 교육의 장으로 끌어들여, 왜 이와 같은 단어 형성 방식이 사용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혼성어'라는 개념 자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국어 생활에서 사용되는 단어를 문법이라는 안목으로 바라보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인간이 어떻게 단어를 만들어 사용하는가에 대한 관심은 인간의 언어에 대한 이해, 나아가 인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한다.

이처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법 문식성 교육에서는 학령기의 학교 교육보다 더 실제적인 사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형적 사례를 통해 특정한 문법 개념을 학습하는 것보다는 실제 국어 생활에서 접하는 언어 자료들을 문법적 안목으로 해석하고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교육 목표이기 때문이다.

한편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법 문식성 교육에서 ‘자기 주도성’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자기 주도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법 문식성 교육은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자신이 접하는 다양한 언어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문법적 안목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함께 길러 주어야 교육의 효과가 클 것이다.

앞서 어문 규범 교육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자기 주도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학습 방법에 대한 학습을 비중 있는 교육 내용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성인 학습자들이 지속적으로 주변의 언어 현상을 관심 있게 관찰하고 문법적 안목에서 해석할 수 있기 위해서는 태도의 측면뿐 아니라 학습 방법의 측면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정된 수업 시간 동안에 언어 현상 분석을 위한 문법 지식을 모두 학습하기는 어렵다. 수업이 끝난 이후 성인 학습자가 현실의 국어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언어 현상들은 새로운 문법 개념을 학습해야 설명할 수 있는 것들로 가득하다. 따라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법 문식성 교육에서는 자신에게 필요한 문법 지식을 어떻게 학습할지에 대한 교수·학습도 필요하다.

분석은 분석 틀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국어 생활에서 접한 언어 현상만으로 자신이 어떤 문법 지식을 학습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작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언어 현상에 관한

질문을 수집하고 문법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답한 내용을 모아 놓은 대규모 자료의 구축이 필요하다. 온라인 질의응답과 같은 형태로 이러한 자료가 구축된다면 학습자는 언어 현상에 대한 질문을 시작점으로 삼아 자신이 어떠한 문법 지식을 학습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어떤 성인 학습자가 ‘문화비축기지’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고 ‘문화와 ‘비축’이라는 말을 함께 사용한 것이 어색하면서도 왠지 신선하다고 느낀 상황을 가정해 보자. 만일 질문을 기반으로 관련된 문법 지식을 확인할 수 있다면, 학습자는 이 문제가 ‘공기(共起) 관계와 관련됨을 알게 될 것이다. 공기 관계에 놓인 단어의 연쇄는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이를 어길 경우 낯설게 느껴진다. ‘문화비축기지’는 이런 이유로 낯설게 느껴진 것인데, ‘문화비축기지’가 ‘석유비축기지’를 염두에 두고 붙인 명칭이라는 점을 알게 되면 ‘문화’와 ‘비축’을 연결한 이유를 이해하게 된다.

‘문화비축기지’는 공기 관계를 의도적으로 어겨 ‘낯설게 하기’ 효과를 만들어 내며, 사람들로 하여금 이 명칭 자체에 주목하게 한다. 기사 등을 통해 ‘문화비축기지’에 관한 정보를 얻어 이곳이 과거에 ‘석유비축기지’였다는 점을 알게 되면, 이와 같은 명칭에 담긴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비축기지’라는 언어 현상에 대한 관심은 ‘공기 관계’라는 문법 개념으로 이어진다. 성인 학습자는 이러한 개념을 학습함으로써 ‘문화비축기지’ 외에도 다양한 언어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기 주도적인 문법 학습을 위해서는 이외에도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앞서 논의한 대로 언어 현상을 매개로 관련 문법 개념을 찾을 수 있는 자료의 구축도 필요하며, 언어 현상 설명에 필요한 문법 개념들을 학습할 때 문법 개념들을 어떤 순서로 학습해야 할지에 대한 논리도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법 문식성 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인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나가며

이상의 논의를 통해 짧게나마 평생 교육 관점의 문법 교육에 대해 살펴보았다.⁶⁾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법 교육의 성격으로 ‘실제성’, ‘자기 주도성’, ‘언어적 성장’ 세 가지를 제안하고, 어문 규범 교육과 문법 문식성 교육의 두 차원에서 이러한 개념들이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주로 ‘실제성’과 ‘자기 주도성’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였기 때문에 이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법 교육에서 ‘언어적 성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사실 언어적 성장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법 교육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학령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 교육 역시 언어적 성장을 지향한다. 그렇다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법 교육이 지향하는 언어적 성장의 특성은 무엇인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법 교육에서 지향하는 언어적 성장은 언어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자신을 ‘성장하는 언어적 주체’로 인식하는 것을 포함한다.

실제성 있는 언어 자료를 자기 주도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경험을 통해 학습자는 언어적으로 성장한다. 문법적 안목으로 국어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해석하려는 태도는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법 교육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법 교육이 공유하는 목표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법 교육은 한 가지를 더 강조한다. 성인 학습자가 교육을 통해 자신이 언어적으로 성장했음을 느낄 뿐 아니라, 자신이 평생의 삶 속에서 언어적 주체로서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존재라는 점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⁷⁾

6) 서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평생 교육은 성인 교육뿐 아니라 학령기의 학교 교육까지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이 글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법 교육에 대해서만 논의하였다.

그간 문법 교육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학령기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문법이라는 안목으로 국어 생활에서 마주하는 언어 현상을 바라보는 일이 삶의 특정 시기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과업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는 평생 교육적 관점의 문법 교육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7) 이러한 점은 평생 교육 일반이 갖는 특성을 문법 교육에 적용해 본 것으로 평생 교육의 관점에서 학령기의 학교 교육을 재편한다면, 학령기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문법 교육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목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조진수·소지영(2016) 참조.

참고 문헌

- 구본관(2016), “문법 연구의 변화와 문법 교육의 변화 - 탈문법학 시대의 문법 교육의 새로운 지향”, 《국어교육연구》 3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97~254쪽.
- 남길임 외(2014), 《2014년 신어》, 국립국어원.
- 민현식(2015), “국어교육과 생애주기(평생)교육의 학제적 접근 - 평생국어교육의 문해력 증진을 위하여”, 《국어교육학연구》 50(1), 국어교육학회, 6~46쪽.
- 신명선(2007), “문법교육에서 추구하는 교육적 인간상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28, 국어교육학회, 423~458쪽.
- 신명선(2013), “‘언어적 주체’ 형성을 위한 문법 교육의 방향”, 《국어교육》 143, 한국어교육학회, 83~120쪽.
- 윤여각(2002),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학교교육방법 개선 방향”, 《평생교육학연구》 8(2), 한국평생교육학회, 21~40쪽.
- 이성영(2012), “국어교육에서 실제성과 가상성의 관계”, 《독서연구》 28, 한국독서학회, 52~81쪽.
- 이지혜(2000), “성인의 학습자 성장과정 연구: 미용인의 직업발달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조진수·소지영(2016), “생애교육 관점의 어문 규범 교육 방향 탐색”, 《청람어문교육》 57, 청람어문교육학회, 181~209쪽.
- 조진수(2018), “문법 문식성 관점의 문장 구조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korean.go.kr>)